

설맞이 연날리기 축제로 '2026 나주방문의해' 시작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해'의 시작을 알리며 전통 명절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설맞이 연날리기 축제를 열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해의 희망과 소망을 전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설 연휴 초반 이틀간 영산강 정원 일원에서 '2026 설맞이 연날리기 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새해의 안녕과 소망을 기원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인 연날리기를 중심으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험형 명절 축제로 마련됐다.

개막식은 2월 14일 오후 1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 선언과 대형 방패연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나주의 희망과 염원을 하늘로 띄우는 상징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 운영되는 소원 연날리기 체험존에서는 참가자들이 연을 직접 꾸미고 새해 소망을 적어 하늘로 날려보는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사전 접수 시 참가비

2월 14일부터 이틀간 영산강 정원서 체험형 명절 축제

소원 연날리기부터 프리마켓까지 세대 공감 프로그램 마련

전통놀이와 참여형 콘텐츠로 풍성한 새해 희망 띄운다

할인 혜택이 포함된다.

사전 접수는 2월 13일까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자에게는 연날리기 체험 키트가 제공되며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를 통해 경품을 받을 기회도 주어진다.

행사장 한편에는 화로를 중심으로 한 군고구마존과 캠핑형 쉼터를 조성해 겨울 정취를 느끼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상인과 함께하는 먹거리 부스와 프리마켓을 운영해 분식과 간식류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이 직접 만든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나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프리마켓 셀러를 모집 중이며 지역 소

상공인과 청년 창작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축제는 소원을 주제로 한 참여형 콘텐츠를 다채롭게 구성한 점이 특징이며 축제에 앞서 나주시 공식 SNS를 통해 새해 소원을 남기면 공감 수가 높은 소원을 선정해 현장 소원 존에 전시하는 사전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소원을 적어 전시하는 소원 율을 비롯해 기부 동전 던지기, 돌담 소원 존, 2026년 행운 소원캡슐 이벤트 등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이 밖에도 개막일에는 지역 예술단체와 청년 버스커 등이 참여하는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



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6 나주방문의해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설맞이 연날리기 축제가 가족과 이웃이 새해 소망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보성군, 국비 확보 전략 점검 2027년 3,514억 원 목표 설정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국비 확보 대응 본격화

보성군은 지난 22일 '2027년 국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3,514억 원 확보를 목표로 체계적인 예산 확보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이상철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과 담당 팀장이 참석했으며, 보성군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타당성, 국비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성 존재산 국립 밀원특화단지 조성, △K-Tea 보성 맞춤형 특산물, △성남·회정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노동·미력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이 포함됐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신규사업을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보다 정교화하고, 중앙부처 정책 방향과 국비 편성 일정에 맞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국비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대응 전략과 실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성군 이상철 부군수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는 보성군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핵심 과제"라며 "국정 과제와 전라남도 시책을 자세히 분석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모사업 선정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구례군은 동절기 및 한파 기간 동안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의 안전을 살피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동절기 안부확인 꾸러미 전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1월 20일부터 2월13일까지 4주간 운영되며,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1인 가구 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와 체계적인 현장 확인을 위해 군 통합사례관리사와 복지기동대원 2명으로 구성

구례군 동절기 1인 가구 대상 안부 확인 꾸러미 전달

복지기동대·통합사례관리사 현장 방문으로 지역 돌봄체계 구축

된 방문 인력을 2개 조로 편성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있다.

방문 인력은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며, 필요 시 통합사례관리 및 관련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 시 생필품과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동절기 안부 확인 꾸러미를 전달하며,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활동에 참여한 구례군 복지기동대 운용준 대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주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상황과 안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1인 가구는 동절기 한파에 특히 취약하다"며 "군은 이번 안부 확인을 통해 조기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복지기동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돌봄체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그동안 추진해 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한 단계 고도화해, 2026년부터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건강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화순군,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본격 추진

2026년부터 방문·디지털 통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특히 만성질환 관리 교육과 폭염·한파 대비 안전 확인 등 생활 전반에 대한 건강·안전 지원도 함께 수행하며, 정기적 가정 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건강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2026년부터 기존 방문건강관리사

업과 연계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노쇠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순목시계형 활동량계, 블루투스 혈압·혈당계 등 ICT 기반 측정기기를 대여하는 방식이다. 전용 앱

(오늘건강)으로 전송된 건강 정보를 보건소 전문 인력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전화·방문 상담과 의료연계를 신속히 진행한다.

군은 정기적인 방문 중심의 기존 관리 방식에서 나아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상자 스스로 건강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자기관리 역량 강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화순/김종환 기자

순천시 여성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대상자는 순천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세부터 80세 이하의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총 89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업e지 앱 및 웹

순천시, 여성농업인 직업성 질환 예방 '특수건강검진' 추진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검진비 1인당 최대 22만원 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접수는 조기 마감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1인당 최대 22만원의 검진비가 지원되며, 주요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으로,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검진 과정에서 질환 예방을 위한 전문 상담과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특히, 여성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검진비의 10% 자부담금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 개인 부담을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의 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061-749-8670)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곡성군, "2026년도 축산분야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2월 4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 구비하여 읍·면사무소로 신청

전남 곡성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6년 축산분야 지원사업은 축산재해 예방부터 가축전염병 차단, 환경개선까지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4일(수)까지이며, 총 45개 사업에 34억 3,700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신청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축산농가(농업인, 농업법인 및 단체,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한우 생산기반 구축(정액비관 질소통, 목걸립 장치, 사료조 등) ▲축산재해 예방 지원(폭염 피해 예방시설·장비, 축사 지붕 열차단제 등) ▲축사 시설 현대화 지원(환풍기, 관정, 축사 환기 시스템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배합기 깔날, 제조용 비닐랩, 예취기 등) ▲포괄 산업 육성(기자재, 설비, 채밀기 등) ▲폐척한 축산환경 조성(악취저감제, 톱밥,

급이시설, 롤링패드, 각종 기자재 등) ▲가축전염병 예방(폐사축 처리기, 예방약품, 백신, 소독기 등) 등으로, 농가별 여건에 맞춰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폭염 등 재해 대응과 방역, 악취 저감 등은 축산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축산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